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89호
1월 8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장 신년사

복음전파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하여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방역당국은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교회를 타깃으로 제재를 가하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구도가 극에 달하고 남북관계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사회를 선도해야할 한국교회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교권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해 안타깝게도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신뢰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우리의 선행과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진리와 행동으로 막아내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화, 상황윤리의 거센 파도와도 맞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늘까지 닿으려는 인간은 돌과 유리 위에 욕망의 역사를 쓰지만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이란 어쩌면 욕망을 줄이기가 아닌지 모릅니다. 욕망을 줄일수록 편안해지고 행복에 다가갑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다툼도 갈등도 불안도 사라집니다. 하늘 끝까지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간은 바벨탑을 건설했고 그 결과 언어가 갈기갈기 찢어져 언어 불통사회가 되었고 인간이 건설한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창 11:1-9)

욕망은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켜 극한의 장애를 뛰어 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라고 부르는 그 모든 일들은 욕망의 선순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장악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게 되면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합니다. 시대착오적 종중(從中), 종북, 반일노선으로 북핵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종전선언을 내세우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굳건한 틀을 헐어내려는 행위를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치자가 무능하면 민생이 어려워지는 법이고 외교, 안보에 무지하면 국가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라를 위해 더 이상의 사회주의자들의 침입을 막고 이번에야말로 의회독재, 포퓰리즘 등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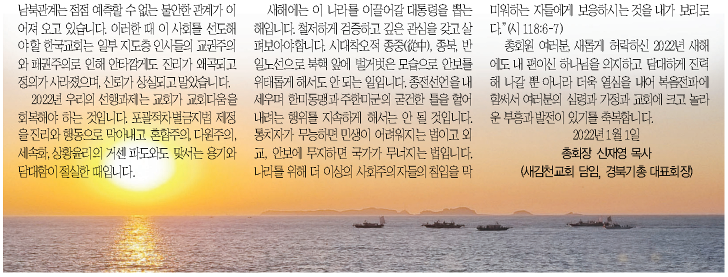
사육신 성삼문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의 끝없는 말 바꾸기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의 말 바꾸기는 국민들을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투표해놓고 투표한 내 손가락 안 쳐다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번 속으면 상대방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이 미련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시 118:6-7)

총회원 여러분, 새롭게 허락하신 2022년 새해에도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진력해 나갈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복음전파에 힘써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크고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1일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담임, 경북기총 대표회장)



제68차 총회 제31회 임원회

교회에 방역패스는 방역빌미 탄압

국가안보, 한미동맹강화, 평등법 저지 위해 기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31회 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수) 오후 3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시대에서 위드코로나를 맞았으나 확진자가 7천여 명이나 되는 등 코로나 19 상황이 매우 위중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으로 열린 다중동영상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총무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와 찬송, 재무 한순남 목사의 성경봉독, 서기 정영진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각종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고전 15: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길어지는 감염병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단과 지방회, 각 기관, 각 교회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2022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서류심사 후 목사고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2022년 목사고시 일정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견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 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소천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임원회에서는 필리핀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도식 선교사와 김성호 선교사에 대해 현지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교지에서는 통신망에도 큰 피해를 입어 전화, 인터넷 등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회 대면예배 재조정과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 선출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동맹 철저히 복원, 평등법 제정 저지, 북핵제재, 공산주의 타파 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또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어 힘이 닿는 대로 돌보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 방역 당국이 교회에 방역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방역당국이 교회를 방역을 빌미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이에 대해 교회발 감염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코로나 이전 임원회에서의 기념촬영 광경

푸른초장 맑은시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조용목 목사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약 2:22)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일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는 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기도와 함께 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해야 할 때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곤란과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하므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하여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일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드리고 베푸는 것과 함께 일하는 원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믿음이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와 가족들과 엘리야가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과 함께 일하여 그 믿음이 현실화되게 합니다.

셋째,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일하여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하였습니다. 말하는데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조석으로 말이 다르면 바벨 성 쌓는 것처럼 허사가 됩니다. 둘째는, 믿음에 합당한 말을 일관성 있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는, 상황이 나쁠수록 믿음에 합당한 말을 더욱 힘써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명령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2,23) 하였습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말과 함께 일하고, 축복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면서 축복의 내용까지 말씀하셨습니다.(민 6:24~27).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명령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넷째, 믿음은 찬송과 함께 일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이웃 나라들이 동맹하여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높은 지대에 이르러 적진이 있는 곳을 보니 시체뿐이었습니다. 적군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시작할 때 이런 기이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그의 찬송과 함께 일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대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런 믿음에는 놀라운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기도와 드림과 입으로 말함과 찬송과 함께 일한 결과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국가인권위,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

진평연 · 반동연 등, 30일 송년집회 갖고 규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송년집회를 갖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젠더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인권정책으로 국가체제마저 흔들려고 하는 인권위의 독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을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헌법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혼인 · 가족 조항의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이 만든 개헌안에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셀프 승진을 요구하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했다.

또 "2019년에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만삭의 태아를 살해해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명칭을 이름에서 떼어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서도 일방적으로 외국인 입장만을 지지하는 편향성을 드러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자국민이 역차별받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위원장이 직접 평등법 세일즈에 나섰는데 평등법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의견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의 말만이 진실이라는 허위 마케팅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더욱 본색을 드러내었는데,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이 혐오표현이라는 소가 웃을 소리를 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판단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를 인권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인데,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겠다는 요량"이라며 "인권위의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제는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일체의 활동들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되지 못한 독립위원회이며, 법률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기구처럼 행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헌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에 관한 입법들, 평등법안, 낙태죄 폐지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맹목적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인권 일방적 지지 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위헌적인 입법 지원활동과 자국민 역차별을 중단하라"고 했다.

3면에서 계속

경기도민연합 시민단체 청와대 앞 시위

"차별금지 입법시 일어나는 정권퇴진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편파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113개 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대표회장 송종완 목사, 이하 경기도민연합)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 이하 경기총)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경기총과 경기도민연합은 113개 참여단체와 함께 현 집권 여당이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 표현, 종교의 자유를 막지 말라 △집권 여당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법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편파적으로 악법의 입법을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악법, 망국법의 입법 시 일어나는 정권퇴진운동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민연합은 "차별금지법은 이름과 다르게 차별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구별을 막고, 언론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인과 사회와 언론의 정당한 기능이 마비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경계했다.

에스더기도운동, 성탄맞이 탈북민가족에 김치 나눔

탈북민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구입한 김치 전달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은 지난해 12월 21일(주일) 오후 1시 영등포에스더기도센터에서 성탄절을 맞아 탈북민교회에 김장을 나누는 행사를 했다. 14일에 이어 2차 '탈북민가족 김치나누기' 행사이다. 에스더기도운동은 40개 탈북민교회에 북한식 김치(교회당 50kg)와 선교후원금을 각각 전달한다. 전달한 김치도 탈북민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용희 대표는 "한국교회가 성탄을 맞아 탈북민교회를 돕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한국교회는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탈북민교회가 북한선교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분단 76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협력을 하여 복음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지난 13년 동안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금식성회를 매년 두 차례 개최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7차 북한구원 금식성회인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구원 금식성회에 전국과 해외에서 온 기도자들이 매년 2, 3천여 명이 참석했다.

'2021 다시 걸어가자 제10회 뚜벅이 축제' 개최

중독회복자모임이 주최한 '2021 다시 걸어가자 제10회 뚜벅이 축제'가 지난해 12월 18일(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횃불광장에서 중독 회복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복귀를 돕는 도우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독회복자모임 '두 번째 출발'은 도박, 알콜, 마약, 게임 등 각종 중독 문제로 사회에서 낙오된 중독자가 한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꿈을 갖고 건강한 마음으로 두 번째 인생에 도전하도록 돕는 회복자 치유 모임이다.

2012년부터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 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주말에 걷기 모임으로 시작됐다. 현재 단도박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독 예방과 재활의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독 회복자와 가족에게 밑반찬과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나눔도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 출발' 정재식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독 회복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우리 사회가 손을 잡아주고 자활을 지원할 때, 회복자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했다.

중독 회복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삼우 김동길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회복자 모임이 10년째 진행된 것에 놀랐다"며 "열심을 다해 도우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원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는 "사행산업과 게임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문제 이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 직원이 직접 참석해 후원물품 전달과 걷기 행사에 동참했다. 중독회복자 가정에 후원물품 김장 20kg, 쌀 20kg은 온라인 배송됐다.

서울씨티교회 청년회 '사랑의 반찬나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서울씨티교회(담임 조희서 목사) 청년회와 함께 최근 중랑구 소외계층 노인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서울씨티교회 청년회는 노인들의 입맛에 맞춰 김치, 도라지무침, 멸치볶음으로 직접 조리한 반찬세트 총 50세트를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반찬 50세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 노인들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해 50가정에 전달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조희정 관장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반찬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울씨티교회 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중랑구 지역 내 취약 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 후원처를 발굴하여 연계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침해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4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했다.

문항은 '차별금지법제정 관련 토론회 찬반 구성 적절성'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광고 규제 부당성', '법원의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 '개인의 거부할 권리를 혐오 표현이라 규정', '단체의 반대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결정 권한'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제정 5대 5 토론자 찬반 구성'에 대해 '적절한 구성'이라는 의견이 52.7%,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49.3%이었고, '법원의 동성간 성행위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50.8%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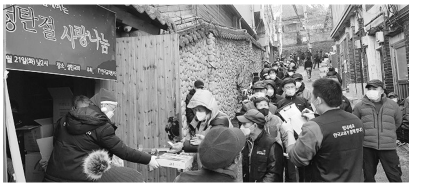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이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 49.7%가 혐오 표현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민 58.2%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교봉, 성탄절 맞아 쪽방촌 주민들과 사랑 나눔 행사

2011년부터 성탄절, 설날, 추석에 쪽방촌 찾아 사랑을 나눠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은 성탄절을 맞아 지난해 12월 21일(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을 찾아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동자동 성민교회 앞 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성탄 선물로 참치캔 선물세트 500개를 나눠주었다.

정성진 한교봉 이사장은 "작지만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한교봉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성탄절, 설날, 추석 등 명절마다 꾸준히 쪽방촌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한편, 22일(수)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주민협동회를 찾아 선물세트 200개를 성탄 선물로 전달했다.

이스라엘 관광부, 신임 차관 부임 소식

이스라엘 관광청은 1월 4일부터 신임 이스라엘 관광부 차관으로 다니 샤하르(Dani Shahar)가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니 샤하르 신임 차관은 지난 9년간 이스라엘 관광부 차관직을 맡았던 아미르 할레비(Amir Halevi)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공공 및 군사 프레임워크 관리에 대한 오랜 경력을 가지고 폭력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이스라엘 당국의 이사직으로 재직하던 중 관광부 차관직으로 임명됐다.

샤하르 신임 차관은 이 전에는 공안부에서 폭력 없는 도시의 국장을 지냈고, 네타냐 시에서 사무총장 대행과 운영 부국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단장, 여단 사령관, 해군 특공대 사령관, 심숀(Shimshon) 비밀 부대 사령관 등 고위 지휘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정치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스라엘 관광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패키지 조성 및 팬데믹 이후를 위한 창의적 마케팅 솔루션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샤하르 신임 차관 임명을 통해 이 모든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요엘 라즈보조프 관광부 장관은 다니 샤하르가 폭넓은 비전을 가지고 조직에 필요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며, 주변 사람들의 롤모델로 꼽힐 만큼 탁월한 대인관계 기술을 지닌 인재임을 주목하며, 임명을 축하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과 덴마크를 적색 국가로 지정하고, 이스라엘 출입국 제한 규정을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자정까지 연장하는 등 내국인과 관광객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흥동교동협의회, 나눔 문화 확산 위한 일일카페

'따뜻한 원데이 카페' 행사, 라오스 저소득 커피 농가인들 후원

새롬문화센터(센터장 마지원 목사)에서 대흥동교동협의회(회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 주최로 '따뜻한 원데이 카페' 행사를 지난해 12월 17일(금) 진행했다.

원데이 카페에서는 전국의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후원한 원두를 통해 다양한 커피 문화를 체험하고 시음할 수 있으며, 방문한 분들의 감동 후원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라오스 북부 지역 저소득 커피 농가인들을 위해 전액 사용하도록 전달된다.

부대행사로는 라오스 커피 산지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과 원더스 인터내셔널의 이성범 대표와 라이언스커피로스터스의 노영준 대표의 라오스 커피 산지 이야기를 토크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모든 행사는 정부 방역기준에 맞춰서 진행했고, 행사 전 소독과 행사 끝나고 소독을 진행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철저하게 준비했다.

행사의 첫 시작은 마지원 목사(새롬교회)의 사회 김연태 목사(우리교회)의 기도 이영섭 목사(대흥교회)의 시낭송 등 연합 예배로 드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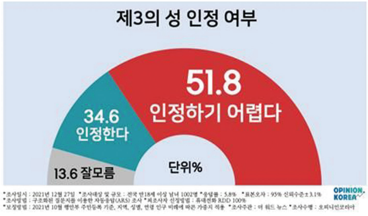
대흥동교동협의회 장헌일 목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며, 교회가 함께 연합하며 할 수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다"라고 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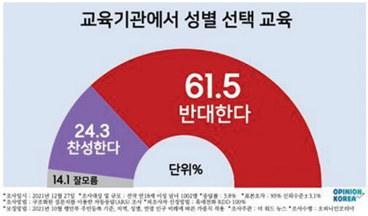
새롬문화센타의 마지원 목사는 "신촌은 문화의 지역으로 오랫동안 인식돼 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지역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문화가 보급되고 나눔으로 확산 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행사를 마치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 연합예배를 마치고 기부금 전달식을 끝으로 '따뜻한 원데이 카페' 행사가 마무리됐으며 기부금을 전달받은 원더스 인터내셔널 이성범 대표는 "코로나19로 더욱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라오스 소규모 농가에 뜻 깊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 60% 이상 "학교서 '성별 선택' 교육 반대"

진평연,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 발표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성별을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두 배가 넘었다.

더워드뉴스의 의뢰로 오피니언코리아가 최근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해 12월 29일(수) 발표됐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7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남·녀 외의 성', "인정 어렵다" 51.8% vs "인정한다" 34.6%

먼저 성별에 남성, 여성 외에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51.8%인 반면, "인정한다"는 답변은 34.6%였다. "모르겠다"는 13.6%였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1.5%가 "반대한다"고, 24.3%가 "찬성한다"고,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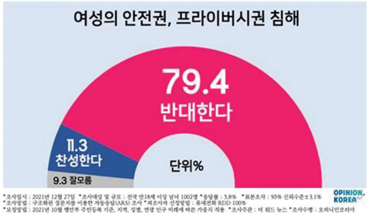
"자신이 女라 주장하는 男의 여목욕탕 사용", 80%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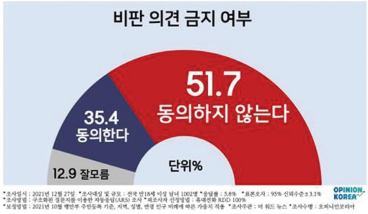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화장실 목욕탕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9.4%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11.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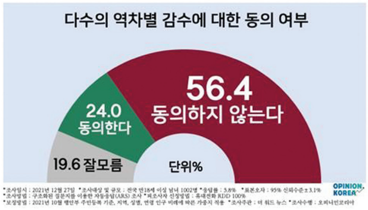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에 의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의 말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51.7%)가 "동의한다"(35.4%)보다 16.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2.9%였다.

성범죄·살인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자는것에는 '반대한다'가 56.1%, '찬성한다'가 32.1%였다.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56.4%)가 "동의한다"(24.0%)보다 32.4%







회복교회 입당감사예배 드리고 비전 선포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해 12월 21일(화) 오전 11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24에 위치한 회복교회(담임 권승철 목사)에서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계 1:8~20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난 6월에 설립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해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선포하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이어서 권승철 담임 목사는 건축 입당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후에는 지방회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권면과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의 축사를 통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문현주 전도사(순복음광양교회)의 헌금기도 이후 증경회장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은혜로운 입당감사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는 회복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감사의 선물과 풍성한 오찬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직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일꾼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지방회 교회를 위로하고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27일(월) 오전 11시 시온순복음교회(담임 성여호수아 목사)를 방문하고 위로예배를 드렸다.

지방회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는 고전 1:18~25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지방회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인 주의 종들과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아가야함을 선포했다.

설교 후 지방회 교회를 위해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은혜가운데 예배를 마쳤다.

그 후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위로금을 전달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또 "인권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반되는 동성애·동성혼 옹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고활동을 중지하라"며 "특히 법률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 의견 표명을 철회하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맞는 인권보호 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편향적 정치적 인권독재정책을 중지하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영의 자유, 사적 자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침과 권고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인권기구의 본래의 모습을 망각하지 말고 국내정치에 개입 및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년집회 사회는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연)가 맡았으며,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취지 설명과 주요셉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후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전원), 이일호 교수(칼빈신학대학교),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임경아 대표(자유시민연대 인천),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법대),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가 발언했다. 성명은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가 낭독했다.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1945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젠더 이론과 관계 없다. 1조부터 30조까지 남녀에 기초한 건강한 결혼제도 등을 말하고 있으며 젠더 옹호 이론은 일체 없는데도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에 젠더이론을 끼워 넣어 자기들 주장을 옹호하는 자의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동성애·젠더 등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보편인권은 강조하지 않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비판을 거부해 종교·사상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2부 순서로 거리행진이 진행돼,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에서 출발해 신한카드건물 앞 → 을지로3가역 → 중부경찰서사거리 → 백병원 앞을 돌아 다시 국가인권위 앞에 도착했다.

〈자료협력 기독일보〉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생명의 말씀

조화를 이루는 신앙

(빌 2:1-5)

정 형 기 목사
- 교단 재판위원장 역임
- 즐거운우리집 요양원 이사장
- 자유통일호국동지회 대표회장
- 예광순복음교회 원로

사람의 성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본능중심의 (장)성격
2.사고중심의 (머리)성격
3.감정중심의 (가슴)

어떤 성격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성격은 주지 않으십니다. 사단에게 받은 것이 아니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가운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위의 9가지 성격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은 좋고, 다른 사람은 자기 성격 같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조화를 이루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는 '조화' 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조화를 잘 이루며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조화를 이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조화를 이룬 직장이나 단체는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룬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 조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조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조화입니다.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습니다.(창 1:27) 조화를 이루며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조화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고후 5:18)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2. 조화는 무엇입니까?

조화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화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 2:1)

조화란 생각이 다르지만 화합하는 것입니다. 조화란 일치하는 것이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조화란 9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하나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요 17:22)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갈 3: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엡 2:16)

3. 조화를 이루려면?

자기주장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TV에서 가끔 국회의원이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각목을 들고 기물을 파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기물 파손으로 고발했더니 판사가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화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조화를 이루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단이나 지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조화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면서 싸우다 보니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마는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크게 3가지로 나누며 세부적으로 9가지로 분류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성격, 자기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싸우게 되고 분리되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화를 이룬 기도를 하셨습니다.(눅 22:42)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막 10:45), 예수님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직원 입장에서, 직원은 사장 입장에서, 목사는 성도 입장에서, 성도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조화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은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가 조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2021년을 보내며, 언론들이 뽑은 10대 뉴스

우리 사회는 올해에도 수많은 뉴스를 산출하였다. 그 뉴스 속에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애환과 삶으로 부딪쳐 실전으로 겪은 아픔과 감동이 있다. 그중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연말이 되면서 각 언론들이 예년처럼 10대 뉴스를 뽑았다. 10대 뉴스를 낸 언론은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이다. 각 언론들이 2021년에 가장 중요하게 본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선정되었나?

가장 높은 순위는 역시 코로나 문제이다. 현재 코로나는 2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선포했었지만, 불과 45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상태이다. 코로나는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 대장동 의혹과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들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은 현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특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그 의혹을 완전히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는 K-콘텐츠의 약진으로 BTS, 오징어게임,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 등을 들고 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통하고, 그 파급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한 달 간격으로 별세했는데, 1980년대 신군부의 주역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란 속에 있었다. 대통령을 지냈지만 실형을 받았기에 그에 대한 예우는 받지 못하였다.

다섯 번째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내년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국회의원 '0'선으로, 각각 유력한 여·야당의 후보로 결정된 사건이다. 두 후보는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 최선이 아닌 차악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민도 크다.

여섯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감옥생활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했는데, 현 정부가 갑자기 사면하게 되어, 내년 대선 정국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일곱 번째는 암호화폐 열풍과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을 들고 있다.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세계 각 정부의 돈 풀기가 부동산, 주식, 가상 화폐가 일제히 올라가는 한해였다. 이 여파로 세계 각국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이뤄졌고, 한국도 10년 만에 가장 높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여덟 번째는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출제 시험문제가 논란이 있어 법정(法廷)까지 갔고, 그 정답을 취소하여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꼽았다.

아홉 번째는 경유 차량에 필수적인 요소수와 반도체의 공급 부족을 들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여파로 요소수 부족을가져왔고, 이는 물류업계, 수송업계, 그리고 서민들의 실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하였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자동차 업계는 생산에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같은 비중으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문제, 정인이 사망 사건까지, 사회적 범죄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하였다.

열 번째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꼽고 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최근에 꾸준히 알려지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음으로, 군의 사기와 질서, 군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나 우려된다.

열한 번째는 지난 4월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소식이다. 현 야당은 지난 5년간 4번의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했는데,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만큼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경고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외에도 제1호 한국형 누리호 발사, 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선전, MZ 세대인 30대의 사회적 최고 자리의 진격 문제를 10대 뉴스로 선정하는 언론도 있었다.

뉴스는 단순히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수용(受容)적 입장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공명(共鳴)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 문제만 해도 정부가 전해주는 소식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인과성이나 해법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보도하는 역할도 필요했을 것이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 문제도 의혹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문제점을 파헤쳐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 정

손현보 목사, 방역지침에 일침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과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가 지난해 12월 23일(목) 세계로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했다. 손현보 목사는 방역당국의 현장감 없는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선도자가 되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탤런트 한인수 특별공연

크리스천 배우 한인수 장로와 최선자 권사가 연극 '야곱'(연출 이민욱)으로 전국 교회를 순회 공연한다. 연극 '야곱'은 새해 1월 4일 오전 11시 40분 수원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대신 · 총회장 황규식 목사) 신년 감사예배에서 특별 공연한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동탄시온교회에서도 공연한다.

정애리, 월드비전 통해 인세 기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친선대사 배우 정애리 씨가 지난해 12월 출간한 두 번째 에세이집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인세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 씨의 인세 기부는 2005년 첫 에세이집 인세 전액 기부에 이어 두 번째다. 월드비전은 이 기부금을 국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욱 감독, 한국최고 인물대상

이민욱 감독이 지난해 12월 27일(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2021 한국최고 인물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최고 인물대상'은 매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 인물에게 시상하고 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1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백리향오일, 유칼립투스잎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잎오일, 구주소나무잎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2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독활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잎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잎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잎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백리향오일, 윈터그린잎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3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워터, 전나무오일, 페퍼멘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4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식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5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잎오일,구주소나무잎오일,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6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7 전나무 오리지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어버너,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8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시어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9 젠틀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10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싸왓디캅 태국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태국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움틉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리며 태국에서 선교소식 드립니다.

방콕안디옥교회

코로나로 6월부터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드려야만 했던 예배를 11월부터 대면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 외에는 성도들이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코로나로 힘든 일들이 많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지나가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더욱 특별한 마음을담아 예물을 올려 드리는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시간이었습니다.

달고 짜고 신 것을 좋아하는 태국인들의 식습관으로 여러 성도들이당뇨로고생을 하는데 신대원 동기목사인 고정열 목사(단구침례교회)가당뇨체크 기계를 제공해 주어서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체크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일할 때 걱정하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는데 순복음춘천교회에서 보내주신 코로나 진단킷트와 마스크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제일교회의 하기철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마스크는 지방에 개척된 4개 교회에 나누었고, 26일 주일

오후에는안디옥교회가 있는 마을(100여 가구)에 마스크와라면과 전도지를 나누면서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나누는 귀한 시간이되었습니다.

대한항공신우회에서성탄 선물을 후원해주셨고, 아이들을 위한인형 선물비용도 보내주셔서 코로나로 마을주민들과 성탄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준비된 물품(라면, 마스크, 전도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전도하는 시간을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모저모 사역지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섬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 부부 모임

지난 11월 18일에 여러 지역에있는 목회자들이 논쏨분 교회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교회마다의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회를 갖고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서로 독려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전하며 작은 행복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2가정에 새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콘파놈교회 엣 전도사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고, 논쏨분교회 판칫 전도사 가정에도 귀여운 아들을 주셔서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시간을 가졌습니다.

쑤린 지역의 쌀은 태국에서 여주 이천의 쌀처럼 유명한데 농사 짓는 성도들이보내 준 쌀로 안디옥교회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지난 19일 주일에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이번 성탄에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자고 했는데,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선물은 지방에 개척된 4개 교회(나콘파놈, 반부아, 씨싸켓, 논쏨분) 목회자들에게 보내주었는데 모두들 선물을 받고 기쁨에 가득한 목회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산족교회

태국 남차이 목사님이 대표로 섬기는 옹깐찬타파라(기독교단체)에 산족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10분의 목회자들에게 작은 격려금을 보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명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산족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앙마이에서 3시간정도에 있는 메뎃너이 산족(카렌족) 교회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바닥 평탄작업을 마쳤고, 내년 1월에 2째주에 올라가서기공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녀오려(11시간소요) 합니다.

비용을 보내주신그말씀양문교회 엄기홍목사님과 함께해주신 김정배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랏룸깨우교회

랏룸깨우 차이차나 전도사 사모(까이)의 동생과 가족(조카)은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이차나 목회자 부부가 방콕안디옥교회에 와서 랏룸깨우 교회에서 있을 성탄예배를 위한 선물과 마스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이차나 전도사가 기저질환(당뇨)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가끔씩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부부와 성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장례

6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때부터 주님을 잘 섬기셨고 신앙의 본이 되셨던 아버님(김수경 권사)이 지난 9월 1일 98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조문과 조의금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대면예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아직 미참중인 성도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와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주소서!

2. 한해의 마무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해에는 저희 부부와 성도들이 전도에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고, 매년 침례받는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하소서!

3. 개척된 지방교회들과 산족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4. 매뎃너이 교회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5. 싸뭇쁘라깐교회 니노전도사 부부의 건강과 목회에 전념하며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6. 저희 부부의 강건함과 세 자녀(주선, 주은, 선기)의 직장생활과 학업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2021년 한 해 동안도 힘써 선교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섬김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된 성탄과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쑥싼완크리스맛 래 싸왓디삐마이캅!”

2021년 12월 27일

김학봉 · 서미식 선교사 드림

2022년 새해 한국사회 바라는 소망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시장경제 및 안보 강화 선진국가로 만들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1.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안보가 튼튼한 국가로 만드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국가의 대사다.

대선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선진 사회를 위한 청사진 경쟁이 되어야 한다. 대선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를 뽑는 민주적인 절차다. 대선은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하고 서로에 대하여 흑색선전하는 비방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데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을 수 없다. 서로가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이 더 좋은 품성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를 선출하는 축제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다. 임기 종료로 물러가는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발붙이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종전 선언 같은 북한 관련 해프닝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2. 파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코로나 종식과 법치주의와 선진국가로 이끌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자

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대사이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만큼 그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뽑힌다. 여태까지 우리는 불행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해임된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지지 그룹 소리만을 듣고 적폐 청산이란 명목으로 전임자들을 사법처리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인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포퓰리즘을 행사하는 파당의 간판이 아닌 상식과 규범에 입각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희생과 실천을 하는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와 진영은 상대방 약점을 들추어내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처방과 국가 경제 살림 정책과 청사진 대결을 해야한다.

3. 버는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내어야 하며 세금폭탄 같은 징벌적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각종 세금을 올리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45%로 만들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높아진 25%로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다 20~30%포인트를 할증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매겼다. 75%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퇴로까지 막은 세금폭탄은 ‘미친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선의의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자 급기야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를 일종의 ‘부유세’로 받아들이는데, 납세자 중 상당수가 정부의 ‘부자 인증’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달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사이에 한숨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투기꾼도 아닌데, 종부세 내느라 생계가 어려워졌다.” 종부세의 세금폭탄 파장은 학교, 교회 법인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세제는 영국의 “Daylight Robbery”와 동일한 창문세라고 본다. 우선 종부세나 보유세는 그 기준이 기준시가나 정부가 정한 현시세의 반영이 문제다. 세금은 이익이 실현된 데에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세의 기준은 매입가여야 한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만 고려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적인 종부세란 것을 없애야 한다. 헌법상 공평과 세원칙에 위배된다. 부동산세는 적정세율로 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하고 적정한 조세는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만 중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4. 재난지원금은 마구잡이 나누기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 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최근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추경은 6차례나 편성했는데, 이는 6·25전쟁 당시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그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 무려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열고 말았다.

5. 종전 선언은 평화의 보장없는 위장 평화선언이다. 국방력 강화하고 탈북자 삶의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종전 선언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당파적 목적이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종전 선언은 북한은 더욱더 도전적이 될 것이다. ‘김정은 10년 축하 선물’이라도 주려는 건가.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 의지’ 거짓 확인하고도 제재완화·종전선언 궁리만 하고 있다. 지난 3번의 정상회담은 어떠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국방력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종전 선언은 2차 세계대전 영국 체임버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의 뮌헨 협정처럼 종이쪽지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빌미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안보가 너무 취약해 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물론 국내 탈북민의 생활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부가 종전 선언에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함으로써 베이징 종전 선언도 물건너 간것으로 보인다

6. 핵 개발 포기 않는 북한에 더 이상 매달지 말고 상호주의로 안보 내실을 튼튼히 하자.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비핵화라는 수식적인 속임수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미북 회담을 했으나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후에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순간도 핵 개발 시나리오를 중단한 적이 없다. 수소탄을 포함한 핵탄두를 완성했고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ICBM, SLBM 완성도 턱밑까지 와있다. 미 위성에 노출된 영변 외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계속 돌리고 있다. 지금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북한과 종전선언은 허울만 그럴듯한 평화선언이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에 매달리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伸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나토(NATO)국가 수준의 핵공동 사용의 협정을 맺거나 미국 교수들이 제안하는 바 같이 독자 핵개발로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NPT 탈퇴 및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교수부의 논조는”현 상황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어긴 북한이 NPT를 잘 지킨 한국 위협 비상상황에서 핵보유는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인이나 한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학자들이다.

7. 자유민주체제를 선진 대한민국 사회체제의 기반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한국은 1948년 자유민주체제로 시작하여 북한 공산정권의 침입으로 6.26 동란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체제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2차대전 이후 탄생국가 중 최초로 OECD에 들어가 2018년 3만불 대열에 들어가 세계경제 대국에 들어갔고 지난해 유엔 개발국은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렸다.

여태까지 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대의 원칙과 가치를 쉽게 허무는 모습을 너무 자주 되풀이해왔다. 북한 정권만 위하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했다. 이는 ‘유연함’이나 ‘실용’과는 다른차원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선진국 답게 인권이나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국가 전반에 확신해나가야 한다.

8. 자유세계 진영 일본에 가까이 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가는 중국에는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자국 보호를 위하여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일 동맹과 쿼드에 들어가 있어 시장 경제와 자유체제를 지닌 국가다. 일본과는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쿼드와 한미일 동맹체 안에서 견제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하여 견제할 것이다.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크다 하드라도 한국을 속국으로 대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11월 중국 결기를 통하여 시진핑 일인 독재 및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가고 있다. 더욱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사례로 미국을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 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민주화를 탄압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합병하려고 무력 침공 위협을 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교류할 수 있으나 정치 안보적으로 예속될 수 없고 인권, 외교를 공유할 수 없다.경계해야 한다.

9.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오커스, 쿼드에 가입하고 북한, 홍콩, 신장 위구르 주민 인권 옹호 지지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AUKUS), 쿼드, 민주주의 정상 회의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파키스탄 등이 포함된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이란까지 끌어들이며 반미(反美) 대오를 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중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한 결과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사드 3불’을 약속해줬지만 우리 주권만 훼손하고 얻은 게 없다. 오늘날 담벼락 외교로 중심축 없는 대한민국을 초래하였다. 원칙없는 친중국 사드 3불 합의로 중국에 굴복하면 중국에 예속된다. 문재인 정권은 “G7 반열 올라” 자찬하면서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규탄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군사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은 이를 비난하고 반일로 나가지 말고 쿼드에 들어가 일본을 쿼드라는 다자 협력에 묶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통일 독일이 나토(NATO)라는 다자 안보에 묶여 있는 것처럼, 국제정치적인 논리다. 외교에 원칙·가치 일관성 지켜야 외교 공간 찾고 자유, 평등, 인권, 평화를 존중하는 품격을 지닌 국가로 존중받아야 한다.

2022년 1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 전국 여교역자국

"새해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역자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염병의 위기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교회에 교회발 확진자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예배인원을 정하는 황당한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통과시키라고 오히려 재촉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며 WCC총회를 지지했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교회가 한국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안과 밖으로 진리가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상황은 좀 어렵더라도 말씀만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월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장
목사 백영자 올림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 전국 여교역자국

조직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임원단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선교부장

회복교회
김순자 목사

복지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획부장

일산벧엘교회
조영란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빛된교회
조은혜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예수향기교회
정에스더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경기지방회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일산지방회 지부장

순복음평강교회
설수자 목사

대전지방회 지부장

샬롬교회
김헵시바 목사

충북지방회 지부장

늘평안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청주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세계로교회
정금자 목사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방회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지부장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동산교회
정복례 목사

은진지방회 지부장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천년초의 효능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진등용 목사 **김수홍** 목사 박노섭 목사 **정진학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목사

고 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 부 장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 무** 차추병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 회 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목사, 장헌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길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고영기**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종권**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협동총무** 이요한 목사, 박종성 목사

후 원 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흥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外 각 교회 장로)

---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한명점 목사와 고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한국교회 보호, 연합해 복음의 지경 넓힌다

한교연 제11회 총회 송태섭 목사 대표회장 재선임

한국교회연합 제11회 총회가 지난해 12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대표회장에 송태섭 목사를 다시 추대하고 3인의 상임회장을 선출하는 등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사명에 충실하는 연합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현 대표회장인 송태섭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음을 보고한 후 총대들에게 선거방법을 물었다. 이어 총대들이 박수로 추대하자고 해 만장일치 박수로 송태섭 목사가 제11회 대표회장에 연임됐다. 이어 상임회장에 입후보한 원종문 목사, 김효종 목사, 김학필 목사도 박수로 추대했다.

제10회기에 이어 11회기 대표회장에 연임된 송태섭 목사는 인사에서 "부족한 사람을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총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교단 14개와 단체 5개 등 총 19곳이 한교연에 가입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연합기관과도 소통하면서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회장은 이어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한국교회 연합의 삼겹줄을 이뤄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데 힘쓰겠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파수꾼의 역할을 견지해 악법 제정을 막아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연합기관 사역은 신임 대표회장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바로세우기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 대표회장은 이날 서기에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직전총회장)를 지명했으며, 회원교단과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회장과 부회장 및 서기 이하 임원은 추후에 임명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11회기 예산안과 사업계획안도 유인물대로 통과됐으며 제11회 총회선언문을 서기 홍정자 목사가 낭독, 박수로 채택하고 폐회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원종문 목사의 사회로 문원순 목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정환 목사), '남북통일을 위해' (조성훈 목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한호석 목사), '한국교회연합과 세계선교를 위해' (현 베드로 목사) 각각 특별기도 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양병희 목사(증경 대표회장)가 '들어야 할 소리' (사 55: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설교에서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린다. 희망을 주거나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들도 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모습도 보인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며 "양심이 밝지 못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은 없어진다. 시대의 위기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이 역사는 장차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거울로, 반복되는 실패를 막아야 한다. 이는 국민과 시민의 소리이자 내 나라를 사랑하는 목소리"라며 "바닷물에 섞인 3%의 소금이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도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서로 분열돼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혼과 한국교회 및 민족이 살 것"이라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운동 "교육 영역 차별금지법"

51개 단체, 앞으로 6개월 간 10만 명 목표 전개

51개 단체가 결성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대표 원성웅 목사, 이하 연대)가 지난해 12월 28일(화)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를 공식화했다.

연대는 앞으로 약 6개월 간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조례폐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 측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정돼 올해 4월 1일 학생인권종합계획 제2기(2021~2023)가 강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민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했다"며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성평등 교육환경조성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했다. 학부모들이 수정을 요구하며 40일이 넘게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지만 단 한 글자도 고쳐주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도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준사법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아울러,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연대는 "서울시의회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에 시민발의권을 발동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6개월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과 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계와 연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망치는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제20대 대선 정책제안을 위한 정책위원 모임 가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저출생 극복, 기독교 역할 등 논의

제20대 대선 정책 제안을 위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 모임이 지난해 12월 18일(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이양구 경상대 교수(전 우크라이나 대사),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윤용범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황종환 박사(지식재단 초대 이사장), 송규운 교수(서울신대 유아교육과), 이은정 정책위원(숭실대 평화통일지도자대학원),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김남순 생활경제연구소장, 장영백 건국대 전 교수,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유영대 부장(국민일보),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참석했다.

김철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장헌일 박사가 "공공정책과 기독교"-저출생 위기, 아동돌봄 해소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장 박사는 "저출산의 문제해결은 없다고 본다. 다만,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믿을만한 돌봄시설이 있다면 출생률이 높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66.2%였다. 자녀 1명만 어머니들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정부와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까닭은 돌봄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미취학 아동의 평균 하원시간은 오후 4시38분, 초등 저학년 평균 귀가 시간은 오후 4시37분으로 약 2~3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돌봄공백을 교회가 담당하면 좋겠다. 5만개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한국교회 정책제안을 위한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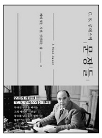
신간안내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

너무 쉽게 '의로운 분노'와 연결 짓지 말라. 우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가두고는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전지하고 전능하며 전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인 존재의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한 점의 죄성도 포함되지 않은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알 때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을 것이다.

저자 : 크리스토퍼 애쉬,스티브 미즐리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1-12-10 | (138*200)mm 264p | 판매가 : 15,000원

C. S.루이스의 문장들 깨어 있는 지성, 실천하는 삶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의 작가 C. S. 루이스, 일상에 숨을 불어넣는 영성과 지성의 수풀로! C. S. 루이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죄, 악, 자연, 성(性), 그리스도인의 삶, 기도, 믿음, 긍휼, 죄책감, 용서 등 기독교 신앙의 주요 주제들에 관한 폭넓은 저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도발적이고 기발하며 통찰력 있는 지혜의 숨은 보화를 담고 있는 동시에, 현대 기독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더없이 완벽한 소개서다. 단순히 재치와 지혜가 담긴 경구가 아니라, 루이스 특유의 사고 성향을 통해 빚어지고 채색된 개념을 실었다. 방대한 지식과 논리력에 상상력이 한데 어우러진 폭넓고 풍성한 앤솔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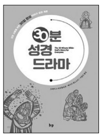
저자/역자 : C. S. 루이스/윤종석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1-12-22 | (135*202)mm 436p | 판매가 : 22,000원

따라 하는 기도 2

〈따라 하는 기도〉가 나온 후 많은 이들이 리뷰와 댓글로 자신의 기도와 삶에 나타난 변화를 나누었다. 무어라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 삶의 고난 앞에서 기도할 힘을 잃은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읽으며 '저도 아멘이에요'로 시작해 점차 자신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따라 하는 기도〉두 번째 책에서 저자는 짧게나마 이러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나누며 이 믿음의 기도를 간곡히 권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단계가 되었다면 기도의 지경을 육신의 삶에서 마음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그리고 이웃 사랑과 중보의 단계로 넓히고 업그레이드해보자.

저자 : 장재기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12-27 | (135*210)mm 288p | 판매가 : 15,000원

30분 성경 드라마 모든 사람을 위한 30일 완성 이야기 성경 개론



뛰어난 성경학자이자 『성경은 드라마다』의 공저자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의 학문적 전문성과, 12년 이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온 노련한 소그룹 지도자 페이지 베노스키의 현장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쉽게 읽히면서도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서술한다. 매 장마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의 성경 본문이 소개되고, 도표와 지도와 일러스트가 더해져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 준다. 또한 책과 함께 제공되는 '30일 성경 개관 챌린지' 가이드는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의를 고취시켜 줄 것이다.

저자/역자 : 크레이그 바르톨로뮤(Craig G. Bartholomew),
페이지 베노스키(Paige P. Vanosky)/이철민 | 출판사 : IVP
발행일 : 2021-12-16 | (140*200)mm 282p | 판매가 : 15,000원

기독교국제연합(C-UN) 출범 감사예배 드려

교육기관으로 기독교육청(청장 민경배 박사) 운영

기독교국제연합(Christian United Nation, 이하 C-UN)이 지난해 12월 27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여전도회관에서 출범 예배를 1부 환영, 2부 예배, 3부 기도회, 4부 축하 순으로 진행했다.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는 "기독교국제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세계의 모든 기독 단체, 교회, 성도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국제기독교 최대 기구로 영어 머리글자인 씨유엔(C-UN) 이라고 부른다."며 "기독교국제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과 각국에 세워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봉사하는 연합체로 강한 통제력보다 협력하는 기구로 본부를 한국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두어 운영하며, 본부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교육기관으로 기독교육청을 운영한다."고 전하고, "기독교국제연합은 교단, 단체, 교회, 개인 회원을 중심으로 11월 8일 오후에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발기인 모임/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마치고, 300여 명의 회원을 영입하여, 2021년 12월 27일 오후에 출범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제1부 환영은 에바다 북찬양 김슬기 목사의 축하공연과 대표총재 심재선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제2부 예배는 회장 김재선 목사의 사회로 상임총재 문원순 목사의 대표기도, 윤시영 장로의 성경봉독, 여성회장 김지혜 목사의 특송,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목사가 눅 19:41-46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여 울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인들이 눈물로 어려운 이들을 감싸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찬양선교사 이송미 사모의 헌금송, 홍승길 장로가 봉헌기도를 했다.

코레일유통 경기본부 생명나눔 운동

경강선 여주역 역사 내 편의점 운영 박인숙 씨 후원금 전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수) 경강선 여주역 역사 내에 있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인숙 씨(53세, 여)의 나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박 씨가 5년간 매장에서 모금한 저금통을 본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코레일유통 경기본부가 100만 원의 후원금을 더 쾌척하며 성사됐다.

1997년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신장을 기증한 외삼촌의 영향으로 2011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박 씨는 그동안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함께 저금통 기부를 안내해 왔다.

박 씨는 "장기기증 운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기부에 참여해준 단골손님들이 떠오른다"며 "5년간 기부에 함께한 고객들의 따뜻한 손길이 묻어있는 빨간 돼지저금통을 내밀었다. 장기부전 환자들이 마음만큼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며 저금통 기부를 결정한 박 씨는 "앞으로도 생명나눔 운동에 함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아름다운 기부릴레이에 동참한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의 김종은 본부장은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박인숙 씨의 나눔 소식을 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발점이 돼준 박인숙 씨의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기기증 운동에 이번 나눔으로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이런 분들 덕분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성으로 모으셨을 소중한 저금통을 기부해 주신 박인숙 씨와 박 씨의 뜻에 함께해준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만성 신부전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밀알복지재단 브릿지온 앙상블, 콘서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 앙상블이 최근 연말 맞이 랜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올 한 해 브릿지온 앙상블에게 성원을 보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콘서트는 밀알복지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날 콘서트에서 브릿지온 앙상블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Eine Kleine Nachtmusik 1악장'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 등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곡과 함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아모르 파티' 등 대중의 귀에 익숙한 인기 가요와 팝송 공연도 펼친다.

사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로 화제를 모았던 이창훈 전 KBS 아나운서가 맡았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2018년 9월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클래식 앙상블이다. 단원들은 모두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플룻, 피아노 등 클래식 악기를 전공한 발달장애인들이다.

'브릿지온'이라는 이름에는 연주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리(Bridge)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밀알복지재단은 랜선 콘서트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와 감상평 이벤트도 진행했다. 당첨자에게는 치킨, 커피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지급했다.

브릿지온 앙상블 단원인 첼리스트 김어령은 "그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브릿지온 앙상블을 찾아주신 기업 관계자들과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후원자분들을 위해 랜선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즐겁게 관람해주시길 바라며, 관객 분들께 선물 같은 공연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전세계에 무차별적으로 번진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점점 블랙홀로 삼켜져 버리고 있으며 이제는 변종바이러스로 인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때 소망과 희망과 해결책을 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유일한 희망의 장소인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인(마 28:19-20)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득불해야 할 사명(고전 9:16)이기에 전도책자를 다시 편집하여 내놓게 되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기사인데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다섯 사람이 나온다. 왜 다섯 제자가 기록되었고 신비로운 천국체험을 했을까? 이들은 모두 생명을 담보로 한 전도자들이었다. 구약에 가장 유명한 전도자를 뽑으라면 당연히 모세가 될 것이다. 모세는 120년을 사역했는데(신 34:7) 80~120세까지 40년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고백 했다(히 11:23~26). 그리고 80세 까지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고백했다(시 90:10). 전도하지 않는 애굽의 금은보화의 삶은 무의미함을 깨달은 것이다. 전도는 고난과 슬픔과 핍박과 쇠사슬과 때로는 죽음도 따른다.(마 5:11~12, 히 11:1~40)

금번 전도 책자는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모세와 같은 황금같이 빛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작은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새해엔 생명책과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전도의 기록이 넘쳐나서 각종 면류관 받는 독자들이 다 되시길 기도한다.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크리스마스 선물

해돋는마을과 월드뷰티핸즈 공동 주최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크리스마스 따뜻한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키 전 식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공동 주최로 지난해 12월 22일(수)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크리스마스 따뜻한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키트 전달식을 갖고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

이날 깜짝 산타클로스가 된 장현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더욱 힘들고 외로운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에스더 회장(교수, 사회복지사)은 "월드뷰티핸즈가 가난하고 소외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 전문인 봉사기관으로 성탄절을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께 밥사랑사역과 뷰티서비스, 어르신 상담을 통해 삶의 의욕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히 박종철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밥사랑 대접을 받기만 했다고 오랫동안 모은 동전을 밥사랑 사역에 사용하도록 헌금해 주셔서 큰 감동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최에스더 교수를 비롯한 장민혁 사무총장 최세연 사무장 최세진 영양사와 구훈 장로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거동 불능한 어르신께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시간차를 두고 사랑의 대체식과 선물을 전해 드렸다.

특히 국제사랑재단(이사장 김승학 목사)과 유환 아이테(유창수), KC산업 나눔회(김상배 장로) 디딤돌 사랑방(엄균영 장로)과 (주)바로나(나정은 장로)에서 쌀국수 후원 등 여러 후원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따뜻한 밥사랑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마포구 대흥동에 소재한 (사)해돋는 마을과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은 매주 밥나눔 사역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강의와 치매예방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기아, 우간다 지역 자립 돕는다

"아프리카 마을의 '위험 신호', 이제 희망의 '청신호'로 바뀌었죠"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기아(KIA)와 함께 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LP)의 우간다 현지 이양을 완료했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기아(주)(이하 기아)와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실시한 사회공헌 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 이하 GLP)'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 공동체에 자립 모델 이양을 완료했다고 지난해 12월 23일(목) 밝혔다.

GLP 사업은 기아가 저개발국가 소외 지역 주민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GLP 사업을 현지 자립 모델로 이양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기아대책과 기아는 2016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간다 마유게 지역에서 GLP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11월 이양식을 열고 우간다 정부와 마유게 지역에 사업 전권을 이양했다. 기아대책은 향후 2년간 현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자립적인 운영이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 5년간 우간다 현지에서 ▲공공의료-보건 시스템 강화 ▲교육 접근성 향상 ▲주민 자립 역량 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혓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500㎖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2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직전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증경회장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상임위원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상임위원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상임위원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상임위원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상임위원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상임부총무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실무총무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실무총무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찬미교회)

실무총무

조선남 목사
(대림벧엘교회)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실무총무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실무부총무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실무부총무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교회)

실무부총무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서기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재무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감사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정회원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정회원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정회원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정회원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정회원

주창민 목사
(순복음벧엘교회)

정회원

배용환 목사
(순복음전원교회)

정회원

옥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정회원

우광덕 목사
(선한목자교회)

정회원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에스더 목사
(예수향기기도원)

정회원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한명점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EL : 051)803-3927
- FAX :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최정식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EL : 062)952-7004
- FA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예하성충남신학교

(학장 오일선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EL : 041)567-3004
- FA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하성청주신학교

(학장 김상용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EL : 043)274-2265, 273-2211
- FA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소망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비록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났을지라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또다시 계획하고 작정하며
새해를 맞이하라 하십니다.
없는 것과 안 될 일로 인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일곱 번 넘어졌지만 여덟 번째 일어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소망의 한해를 기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이기에...
소망이 있는 자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이기에…

마음만큼 행동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선물로 주신 새해를
새로운 맘으로 기대하며 맞이한다.

사 설

희망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열매를 거두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여전히 동녘에서 어제의 태양이 오늘 환하게 떠오르듯,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인류를 향한 환한 빛을 내 비춰 주신다. 역사 이래로 이 땅에는 어둠의 그림자도 있었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내리는 곳에는 그들의 자리를 내주었다.

우리는 지금 펜데믹 코로나로 어두운 그늘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의 소중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잠시 어둠을 허락하셨다고 본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비록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다 하여도, 빛을 향한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생명을 담보로 진리의 복음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들려주었던 구원의 희망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해짐으로 그 속도를 더하고 명도(明度)를 더하여 온 땅에 골고루 퍼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에도 고난과 환난이 닥쳤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희망의 씨앗을 줄기차게 뿌려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만이 살길이며 예수만이 살길이 됨을 마르고 닳도록 선포하는 열심에 매진해야 한다.

누구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여, 진리를 담보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나가는 2022년 한 해로 만들어 가자. 역사의 시작이며, 중심이며, 주관자이며, 통치자이며, 심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한층 높여 드리자. 우리의 간구(懇求)로 세상에 정의가 자리 잡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자. 세상의 어둠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온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불을 환히 밝히자.

이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종말에 다가왔음을 잊지 말자.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풍덩 빠지는 한 해가 되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나라를 바로 세워가자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이다.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내년에는 상식적이고 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국민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유니온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것이다. 그랬더니 박정희43.0%, 김대중20.3%, 노무현16.9%, 이명박3.5%.. 등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여론조사 때마다 부동의 1위는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1위다. 이유는 경제 발전이다.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경제 대국나라로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직은 그런 대통령이 한국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드골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고대해본다. 그는 16년간 두 차례나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망해버린 나라를, 두 번째는 내전 직전의 나라를 맡아 위기 탈출에 성공한 대통령이다. 프랑스 국익 수호에만 몰두한 드골, 오늘의 프랑스, 오늘의 유럽은 드골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한다.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국익 하나에 매달리는 대통령 말이다. (내)사람이 먼저인 그런 대통령 말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권 재창출에만 매달리는 그런 대통령 말고, 가는 길이 틀렸다고 수정하라고 외쳐대도 내 고집대로만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대통령 말고, 극심한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 말고, 온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부국강병(富國強兵)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그런 대통령의 탄생을 원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빚을 내서 마구 퍼주어서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미래 세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대통령 말고, 나라의 재정을 탄탄하게 살찌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경호원을 63명이나 더 늘리고, 안전한 퇴임 후를 위하여 공수처를 만들고, 누구도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소환하지 못하도록 입법, 사법, 행정에 내 사람만 꽂는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소중한 내 한 표가 나라를 바로 세워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딤전 2:1-2)

한교연 11회기 첫 간담회 열고 역점 정책과 사업 밝혀

송태섭 대표회장 "교회 일치와 연합에 앞장, 모범적인 연합기관 될 것"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해 12월 21일(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회원교단장 단체장 및 신임원 상임(특별)위원장 간담회' 를 개최했다.

회원교단 총회장과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회기의 역점 정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10회기에 이어 11회기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원들과 위원장들의 기도와 협력에 힘입어 새 회기에 한교연이 교회 일치와 연합에 앞장서며, 회원 간에 교제와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장 모범적인 연합기관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제11회 총회를 마친 후 바로 상임회장단 워크숍을 갖고 새 회기 주요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임원 조직과 상임(특별)위원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도 대표회장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CCIK (사)한국교회연합
제11회기 임원 및 교단(단체)장 · 상임(특별)위원장 간담회
CUP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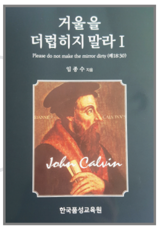
한교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회기 임원회 결의대로 공동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회비를 책정했으며, 교단 단체 분담금도 교회 숫자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총회 대의원 수도 동수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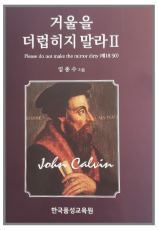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는 원종문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김학필 목사(상임회장)가 기도하고, 최귀수 목사(사무총장)의 임원 소개, 송태섭 대표회장의 인사 및 정책과 사업 소개, 박만수 목사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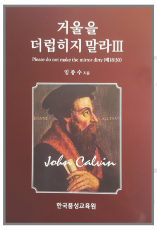
한교연은 지난 총회에 들어온 사랑의 쌀 800kg을 1월 중에 미혼모,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전량 전달하기로 했으며, 2월 중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 락 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